

유미디어 POD센터 오픈

한국후지제록스, 모비엘테크와 협력해 POD시장 공략 가속화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 www.fujixerox.co.kr)가 최근 전자출판·디자인 분야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업 (주)모비엘테크(대표 김홍수, www.mobieltech.co.kr)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동에 '유미디어피오디센터(YouMedia POD Center)'를 설립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지난 2003년 10월 학습지 시장에 디지털화를 도입하여 1대1 맞춤 학습 교재 시장을 개척하였고,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인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해 왔다.

모비엘테크는 20년간 전자출판 및 디자인 분야의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보유하고 동시에 교육 서비스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으로, 교재·매뉴얼 및 CRM이 적용된 기업 인쇄물 제작 서비스를 웹기반의 토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IBT-TOEFL 온라인 모의고사 응시생을 대상으로 성적분석과 보충 학습용 콘텐츠로 구성된 맞춤교재 제작을 시험시행 기업과 제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TEPS 및 일반 교과목에서도 주문형 맞춤교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유미디어 POD센터는 학생 개인의 실력을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 취약 부분을 집중 보강해주는 '1:1 맞춤 교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유미디어 POD센터에는 한국후지제록스의 흑백 인쇄 시스템인 DocuTech6180 2대와 컬러 인쇄 시스템인 DocuColor5000 1대가 설치돼 있다. 이 제품들은 각각 분당 180매 분량의 책 1권, 분당 50매 분량의 컬러 화



한국후지제록스가 최근 (주)모비엘테크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동에 '유미디어피오디센터'를 설립했다. 사진은 테이프커팅모습

보 1권을 출력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구로동과 경기도 안양 등 두 곳에 PODWorld(주)라는 POD센터를 개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후지제록스는 이번 유미디어 POD센터를 통해 POD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수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개 인별로 차별화 된 마케팅 트렌드에 따라 학습지 시장에서 맞춤형 교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시장공략과 제휴 업체간 협력을 통해 맞춤 학습지 시장에서 선두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수 모비엘테크 사장은 "유미디어피오디센터는 디지털 프린팅을 위한 단순 출력센터가 아닌, 다양한 POD 응용서비스 개발의 산과역할과 시장검증을 위한 실험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갑준 차장